

구역공과 제3권 (1단원 : 천국 시민이 받을 복) (제4과)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의 복

- 본문 : 마태복음 5:1-12
- 요절 :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마 5:6)
- 찬송 : 265장(새찬송가 516장), 316장(새찬송가 526장)

공과내용

오늘날 지구상에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나라들이 있는 반면에 하루 한 끼의 음식조차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여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 나라들도 적지 않습니다. 굶주린 사람에게는 다른 모든 욕구에 우선해서 음식을 마음껏 배불리 먹는 것이 최고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한낮의 태양 빛이 내리쬐는 사막에서 기갈로 죽어가는 자는 세상의 그 어떤 보화보다도 한 그릇의 시원한 물을 마시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마 5:6)라고 하셨으니, 이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초기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실 때 체험하셨던 극한 굶주림과 갈함을 바탕으로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의’를 추구하되 마치 굶주리고 목마라 죽어가는 자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갈망하듯이 하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의’(義)가 무엇이며 또 그 의를 추구할 때 받는 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1.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를 갈망해야 합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자기에게 ‘의’가 전혀 없음을 절실히 깨닫고 의를 얻기 위해 갈망하는 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롬 3:10)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므로 자신의 의로써 하나님께 용납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렘 13:23) 하신 성경 말씀과 같이, 죄인된 인간은 자신을 얹어 매고 있는 죄의 멍에와 결박을 끊어 버리려고 아무리 애써도 무능하고 불의한 자신을 발견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에게 구원의 의를 얻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곧 죄인들을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롬 3:21~22) 하였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의를 주리고 목마른 자처럼 사모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의는 행위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도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은 것으로 결코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완전한 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된 성도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2. 우리는 성도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된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는 새로운 갈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엡 5:8)는 말씀대로 옛사람의 죄된 행실을 벗어 던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답게 모든 생활에서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고자 애씁니다.

물론 거룩한 삶은 우리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의 죄된 생활을 부끄럽게 여기고 빛의 자녀답게 그리스도를 닮기를 갈망할지라도 성화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라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롬 8:3~4)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이룩할 수 없었던 의를 가능케 하신 성령님을 힘입어 행함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말세가 되어 사단은 갖은 방법을 다하여 성도들의 성화를 방해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케 하라” (고후 7:1)는 말씀을 좇아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3.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을 얻게 됩니다.

사람은 이성 없는 짐승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떡과 물로써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할지라도 여전히 영혼의 배고픔과 기갈은 남아 있게 됩니다.

이 심령의 공허를 메꾸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쾌락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과 같은 것을 추구하지만, 그런 것으로 영혼의 욕구를 만족시키거나 삶의 무의미를 떨쳐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영적인 배부름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 6:35)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혼의 배부름을 얻은 성도는 이전에 좋아하던 세상적인 즐거움이 얼마나 추하고 무가치한 것인가를 깨닫고 이를 분토와 같이 버립니다. 그 대신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참된 목적과 가치를 발견한 자답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곧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요 6:27).

건강한 사람이 끼니때마다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듯이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는 더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한 갈망을 갖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지만 매일 매 순간 의인답게 살고, 성도답게 살려고 더욱 갈망한다는 점에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이며, 그의 배고픔과 갈증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채움을 받으므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의 삶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성도답게 항상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세로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감으로, 장차 주 앞에 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야 하겠습니다.